간호학 석사학위 논문

학업 병행 간호사의 자아간호성,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

 아주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심수경
학업 병행 간호사의 자아탄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

지도교수 박 지 원

이 논문은 간호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2월

 아주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심수경
심수경의 강호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반기원 (인)
심사위원 박진희 (인)
심사위원 송주운 (인)

 아주대학교 대학원
2014년 12월 19일
감사의 글

대학원 입문부터 2년 동안의 대학원 생활, 논문 완성까지의 시간은 힘들었지만 이 기간 동안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할 수 있었으며 논문이라는 큰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좋은 가르침을 주신 모든 교수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논문 시작부터 완성하기까지 많은 힘든 점이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부족한 저를 위해 꾸준히 지도해주시고 세심히 청취해주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신 박지원 교수님께 존경의 마음과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세세하게 논문을 완주시고 조언해주신 박진희 교수님과 송주은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병원생활하면서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배려해주신도와주신 팀장님과 수선생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대학원 과정이 힘들고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지칠 때마다 함께 하며 이끌어주시며 논문완성까지 함께할 수 있도록 격려와 조언을 아끼지 않은 대학원 동기들, 선배들의 모든 품질까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함께 해준 나의 동기들. 언제나 면합없이 격려해 주시며 격려해준 동기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오랫동안 면합없는 우정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학업을 잘해낼 수 있도록 항상 묵묵히 저를 믿고 지켜봐주시고 끝임없이 용원해주신 부모님과 나를 먼저 생각해주는 동생에게도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4년 12월
연구자 심수경 울림
국문요약

학업병행 간호사의 자아탄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

본 연구는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간호사의 자아탄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를 확인하고, 자아탄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교육부령이 지정하는 대학급 이상의 간호교육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간호학사 학위 특별과정(RN-B SN), 대학원 석사학위 및 전문간호사 과정까지를 포함한 공식적인 교육과정을 받고 있는 학업병행간호사를 대상으로 설문표출하여 139명을 회중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3년 10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수집된 자료는 IBM SPSS를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은 빈도, 변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고, 자아탄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직무스트레스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대상자에 따른 자아탄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직무스트레스 정도는 t-test, ANOVA, 사후검정은 Schéffe 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자아탄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직무스트레스 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연구대상자의 자아탄력성의 평균은 3.39±0.36점으로 나타났고, 하부영역별로는 대인관계가 3.74±0.4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평균은 3.66±0.43점으로 나타났고, 하부영역별로는 자기 조절 효능감이 4.11±0.4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직무스트레스의 평균은 1.99±0.34점으로 나타났고, 하부영역별로...
로는 직무요구가 2.75±0.6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3.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보면 근무환경 ($t=2.548, p=.012$), 근무지 만족도 ($F=18.768, p<.001$), 취미활동 역부 ($t=-2.603, p=.0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간호사들은 일과 가정, 학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을 주고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무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자아탄력성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핵심어 : 학업병행간호사, 자아탄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직무스트레스
차 례

국문요약 ........................................................................................................ i
차 례 ........................................................................................................ iii
표 차 례 ....................................................................................................... v
부록차 례 ................................................................................................... v

I. 서 론 ............................................................................................................ 1
   A. 연구의 필요성 ..................................................................................... 1
   B. 연구의 목적 ....................................................................................... 3
   C. 용어의 정의 ....................................................................................... 4

II. 분현고찰 .................................................................................................. 6

III. 연구방법 ................................................................................................ 12
   A. 연구 설계 .......................................................................................... 12
   B. 연구 대상자 및 표집방법 ................................................................ 12
   C. 연구 도구 .......................................................................................... 13
   D. 자료수집방법 .................................................................................. 14
   E. 윤리적 고려 ....................................................................................... 15
   F. 자료분석방법 .................................................................................. 16
IV. 연구결과 ........................................................................................................... 17
   A.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 17
   B. 대상자의 자아타당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직무스트레스 정도 .............. 21
   C.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타당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직무스트레스 .................................................................................................. 23
   D. 대상자의 자아타당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직무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 ...................................................................................................... 28

V. 논의 ..................................................................................................................... 29

VI. 결론 및 제언 ..................................................................................................... 33

참고문헌 ................................................................................................................. 35

부 록 ........................................................................................................................... 43

영문초록 ................................................................................................................. 54
표 차례

표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 18
表 2. 대상자의 직무관련 특성 ................................................................... 20
表 3.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직무스트레스 정도 .......... 22
表 4.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직무스트레스 ................................................................. 24
表 5. 대상자의 직무관련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직무스트레스 ................................................................. 26
表 6.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직무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 … 28

부록 차례

부록 1. 심의결과통보서 ........................................................................ 18
부록 2. 피험자 설문문 및 동의서 .............................................................. 20
부록 3. 설문지 ....................................................................................... 20
I. 서론

A. 연구의 필요성


그러나 계속 교육에 활발히 참여하고 있는 간호사의 78.8%가 20-30대이고, 이들은 일과 가정을 양립해야 하는 가임기 여성들이기 때문에(김민선, 2009)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간호사는 일과 학업, 가정을 함께 이끌어야 하는 과중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김영탑, 2010). 현대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생존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나 저속적인 스트레스는 소진상태에 이르게 하고, 학업성취에 저해요인으로, 공극적으로 건강에 주요 위험요인으로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간호사의 스트레스는 역할갈등, 물리적 환경, 교대근무, 업무 중장과 같은 작업조건(Jie & Vickie, 2008), 갑분노동(안지영 등, 2007)과 관련이 있으며 간호 직무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의욕상실, 간호
대상자에 대한 무관심, 불필요 등을 야기 시켜 환자에게 양질의 간호를 제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간호사 개인의 안정을 위협하게 되어 정상적인 신체기능의 이상을 초래하고, 간호발전의 저해와 병원경영에도 많은 손실을 가져온다(송인숙, 2008).


자기효능감은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에서도 잘 적응하여 어려운 과제나 교통, 불유희한 경험에도 적응력이 높은 개인적 자원이다(Bakker et al., 2009). 자기효능감은 어떠한 결과를 얻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조직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자기의 판단을 의미하는데(Bandura, 1986),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습자가 학업적 과제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내리는 판단으로 정의된다(김아영, 2001). 어떤 전문직보다 많은 책임감과 독립성을 필요로 하는 간호사의 자기효능감은 직무만족과 간호수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이승희, 2008),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이 그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는 신념이 강하고(임진형, 1999), 스트레스를 주는 사건에도 잘 적응하여 어려운 과제나 교통, 불유욕한 경험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업을 병행하는 간호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학업 병행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자아탄력성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파악하고, 자아탄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학업 병행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을 주고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B.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간호사의 자아탄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를 확인하고, 자아탄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업 병행 간호사의 자아탄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직무스트레스를 파악한다.
둘째, 학업 병행 간호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직무스트레스를 파악한다.
셋째, 학업병행간호사의 자아탄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직무스트레스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C. 용어의 정의

1. 자아탄력성
   (a) 이론적 정의
   자아 탄력성이란 역경이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개인이 자신의 능력이나 이전
   과 같은 기능을 상실하였으나 이전의 적응 수준으로 다시 되돌아오고 회복할 수 있
   는 능력을 말한다(김승경, 2004).

   (b)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 Block과 Kerman(1996)이 개발한 자아탄력성척도(Ego-resiliency
   Scale, ER)를 유성경(2002)이 변안 후,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2. 학업적 자기효능감
   (a) 이론적 정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학업적 상황에서 학습자가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
   한 행위를 조작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을 말한다(김아영, 2001).

   (b) 조작적 정의
   본 연구에서는 김아영(2001)이 개발한 학업적 자기효능감 척도를 이용하여 측
   정한 점수를 의미한다.
3. 직무스트레스

(a) 이론적 정의
직무스트레스는 조직에서 일할 수밖에 없어 개인의 육구나 성격 및 능력이 환경적 요구와 일치하지 않을 때 느끼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Schuler, 1980).

(b) 조작적 정의
Ⅱ. 문헌고찰

1.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


Claus(1980)는 간호사는 다른 직종과는 달리 특별히 스트레스가 많은 업무와 환경 속에서 직무를 수행하며 그 과정에서 계속적인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어 타 직종에 비해 스트레스 수준이 높고 그로 인한 문제도 훨씬 심각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이는 병원 내 전문분야가 세분화됨에 따른 새로운 지식습득과 여러 직종들 간의 팀워크, 파다한 업무량으로 간호사의 역할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정희(2005)의 연구에서도 간호사가 축해 있는 병원조직은 위계질서와 명령체계가 강조되며, 다양한
육구를 가진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면서 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행정직 등 전문직이 고고 다양한 직종들이 협동 작업으로 업무를 진행해 나가야 하므로 간호사는 일반 직장인들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현대사회에서 고도의 의학과 지식의 발달로 다양한 인간관계와 근무조건, 간호대상자들의 질적인 수준 향상 등으로 인해 간호사에 대한 절실한 요구가 증가되어 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는 점점 더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간호사를 둘러싼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들 즉, 교대근무에서 오는 생체리듬의 불균형, 양육문제, 건강에 위험을 주는 환경, 간호사에 대한 인식부족, 수준 높은 간호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간호사에게 새로운 스트레스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노재훈, 안미경, 2003). 간호사의 스트레스는 교대근무, 업무 간장 등과 같은 작업조건(Silva et al., 2010), 감정노동(안지영 등, 2007), 생활 스트레스(조현숙, 2000)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작업병행 간호사의 스트레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초지표를 도출하기 위해, 자아중심성과 학생적 자기효능감이 직무스트레스와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탄력성은 위기와 역경의 상황에 직면하여 전방하게 잘 적응함과 더불어 한 단계 더 나은 성장을 이루는 능력(Walsh, 1995)을 의미하며, 자아탄력성은 상황적 요구나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 속에서도 자아통제 수준을 변화시키며 융통성 있게 반응하여 성공적인 적응을 하는 능력으로 (Block & Kremen, 1996), 간호사들이 업무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 막중한 직무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기능과 적응을 촉진하고 스트레스의 영향을 완화시키므로 간호사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적 특성이다(Tusae & Dyer, 2004).

자아탄력적인 사람은 상황에 따라 긴장과 안내의 수준을 강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조절능력이 높기 때문에 성공적인 적응을 할 수 있다. 반면 자아가 제쳐진 사람은 이런 조절능력이 낮아서 낮은 상황이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반응의 응용성이 부족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Block & Kremen, 1996).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고, 자아탄력성이 낮을수록 정신건강 영역에서는 낮은 부적 상관을 나타낸다(민정일, 2007).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자아탄력적인 사람들은 대체로 어떤 상황을 스트레스로 덜 자각하며, 일단 어떤 상황이 스트레스로 지각되더라도 이를 인해 불안이나 우울을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유지연, 2011),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생활 스트레스를 적게 자각하며 정신적으로 건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정은숙, 2006), 자아탄력성은 직무스트레스와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정혜옥, 이육형, 2011).

황순택, 구형모, 김지혜(2001)의 연구에서는 자아탄력성이 높은 사람이 불안에 민감하지 않으며, 역경인 상황이 스트레스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대인관계 및 인권 관계에서 일어나는 문제나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였다. 자아탄력적인 사
람들은 높은 자신감과 자기존중감을 지니고 있고,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인지적 기술과 사회적 기술도 갖추고 있고,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잘 적용한다고 한다(장희숙, 2001).


자아탄력성은 간호사들이 업무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과 스트레스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고, 다양한 직무 스트레스에도 불구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기능과 적응을 축진하고 스트레스의 영향을 완화시켜(Tusaie & Dyer, 2004), 간호사로서 발전하고 성공하도록 하는 한편 건강한 전문적 자아정체성과 전문직업적 역량을 획득하면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하여 자아탄력성이 간호사들에게 꼭 필요한 개인적 특성임을 강조하였다(Jackson et al, 2007).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자아탄력성은 스트레스에 관계가 있는 변 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강한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가진 사람은 많은 방법으로 성취를 높이고 정신 건강을 향상시키며, 어려운 과제를 피하려야 할 위협이 아니라 정복하여야 할 도전으로 인식하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학업적 자기호능감은 스트레스에 관계가 있는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II. 연구방법

A. 연구 설계

본 연구는 학업병행 간호사의 자아탄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를 확인하고 자아탄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연구이다.

B. 연구 대상자 및 표집방법

본 연구의 대상자는 경기도 소재한 일개대학병원 또는 일개대학교에 다니는 교육부령이 지정하는 대학급 이상의 간호교육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간호학사 학위 특별과정(RN-BSN), 대학원 석사학위에서 공식적인 교육과정을 밟고 있는 간호사들 근접모집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선정기준에 의하여 입의표출 하였다. 탈락률을 고려하여 142명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불성실하게 답변된 3부를 제외한 139부의 설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종합병원이상의 병원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
2) 공식적인 교육과정을 하기 이상 밟고 있는 자.

대상자수는 G Power 3.0 analysis software를 이용하여 상관관계분석에 필요한 유의수준 0.01, 중간효과크기 0.15, 검정력 0.85으로 산출하였을 때 표본수는 121명이었다.
C. 연구 도구

1. 자아탄력성

Block과 Kernen(1996)이 개발한 자아탄력성척도(ER)를 유성경(2002)이 변안 후,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대인관계(3문항), 활성성(2문항), 감정통제(2문항), 호기심(5문항), 낙관성(2문항)의 5가지 하위요인으로 총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7점 Likert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까지로 되어 있으며, 총 점수의 범위는 14점~70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사전 경험이 표현된 경향을 보이며, 학업적 자기효능감과의 상관관계가 높아진다. 유성경(2002)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79였으며, 김예숙(2011)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a는 .82이었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는 .73이었다.

2. 학업적 자기효능감

3. 직무스트레스

장세진 등(2004)이 개발한 한국인 직무 스트레스 측정도구 단축형(KOSS-SF)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직무요구도(4문항), 직무 자율성 결여(4문항), 관계갈등(3문항), 직무불안정(2문항), 조직체계(4문항), 보상 부적절(3문항), 직장문화(4문항)의 7가지 하부요인으로 총 2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4 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0점)에서 ‘매우 그렇다’(3점)까지로 되어 있으며, 총 점수의 범위는 0점~72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직무 스트레스점수가 높을 의미한다. 이 도구는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a .79이었으며, 김태경(2011)의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a는 .75이었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는 .75이었다.

D. 자료수집방법


또한 일개대학교의 학업을 병행하는 간호사와의 만남을 응원하게 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일개대학교의 간호학생 학위 특별과정(RN-BSN), 대학원 석사학위 및 전
문간호사 과정의 수업이 있는 날 직접 학교를 방문하여 담당교수의 허락을 받은 후, 연구의 목적을 설명하고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로서 연구 참여에 서면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설문지는 총 142부를 배부하여 자료분석에서는 139부 이용되었다.

E. 윤리적 고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게 될 A대학교병원의 IRB 심의과정을 통해 승인을 받아 시행하였다. 대상자 모집 시 연구자가 직접 방문하여 본 연구의 목적과 과정을 설명한 후 자발적으로 참여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대상자로 선정하여 설문지를 배부하고 작성된 설문지는 개별적으로 대상자가 붙여 넣고 별첨하여 연구자가 직접 회수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본인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설문지를 작성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시 의병성이 보장되며, 설문내용과 결과는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설명하고 이 모든 내용에 대해 서면 동의를 받았 다. 참여한 모든 대상자에게 참여에 대한 감사로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F. 자료분석방법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의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직무스트레스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직무스트레스 차이는 t-test, ANOVA, 사후검정은 Schéffe tes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간의 관계는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Ⅳ. 연구결과

A.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인 학업병행간호사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으로는 나이, 종교, 결혼상태, 자녀여부, 학력, 학기, 취미활동 여부, 직무관련 특성으로는 병원형태, 근무형태, 총 근무경력, 현부서 근무경력, 근무부서, 직책, 근무지 만족도, 연봉이 포함되어 있으며,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대상자의 평균연령은 28.73±4.53세였으며 26-30세 이하가 79명(56.8%)으로 가장 많았다. 종교가 있는 경우가 82명(59.0%), 결혼 상태는 미혼이 110명(79.1%)이었고, 자녀 여부는 없는 경우가 126명(90.6%)으로 나타났다. 학력은 RN-BSN 과정이 94명(67.6%)으로 가장 많았고, 석사과정(전문간호사과정)이 27명(19.4%), 석사과정(일반과정)이 18명(12.9%) 순으로 나타났다. 수강학기로는 2학기생이 90명(64.7%), 4학기생이 49명(35.3%)으로 나타났고, 취미활동이 없는 경우가 88명(63.3%)으로 나타났다.


<table>
<thead>
<tr>
<th>특성</th>
<th>구분</th>
<th>실수</th>
<th>백분율</th>
<th>평균±표준편차</th>
</tr>
</thead>
<tbody>
<tr>
<td>나이</td>
<td>25세 이하</td>
<td>28</td>
<td>20.1</td>
<td>28.73±4.53</td>
</tr>
<tr>
<td></td>
<td>26-30세 이하</td>
<td>79</td>
<td>56.8</td>
<td></td>
</tr>
<tr>
<td></td>
<td>31-35세 이하</td>
<td>22</td>
<td>15.8</td>
<td></td>
</tr>
<tr>
<td></td>
<td>36세 이상</td>
<td>10</td>
<td>7.2</td>
<td></td>
</tr>
<tr>
<td>종교</td>
<td>유</td>
<td>82</td>
<td>59.0</td>
<td></td>
</tr>
<tr>
<td></td>
<td>무</td>
<td>57</td>
<td>41.0</td>
<td></td>
</tr>
<tr>
<td>결혼상태</td>
<td>미혼</td>
<td>110</td>
<td>79.1</td>
<td></td>
</tr>
<tr>
<td></td>
<td>기혼</td>
<td>29</td>
<td>20.9</td>
<td></td>
</tr>
<tr>
<td>자녀</td>
<td>유</td>
<td>13</td>
<td>9.4</td>
<td></td>
</tr>
<tr>
<td></td>
<td>무</td>
<td>126</td>
<td>90.6</td>
<td></td>
</tr>
<tr>
<td>학력</td>
<td>RN-BSN과정</td>
<td>94</td>
<td>67.6</td>
<td></td>
</tr>
<tr>
<td></td>
<td>석사과정(일반과정)</td>
<td>18</td>
<td>12.9</td>
<td></td>
</tr>
<tr>
<td></td>
<td>석사과정(전문간호사과정)</td>
<td>27</td>
<td>19.4</td>
<td></td>
</tr>
<tr>
<td>학기</td>
<td>2학기</td>
<td>90</td>
<td>64.7</td>
<td></td>
</tr>
<tr>
<td></td>
<td>4학기</td>
<td>49</td>
<td>35.3</td>
<td></td>
</tr>
<tr>
<td>취미활동</td>
<td>유</td>
<td>51</td>
<td>36.7</td>
<td></td>
</tr>
<tr>
<td></td>
<td>무</td>
<td>88</td>
<td>63.3</td>
<td></td>
</tr>
</tbody>
</table>
2. 대상자의 직무관련 특성

직무관련 특성은 <표 2>와 같다. 대상자의 병원형태는 대학병원이 107명 (77.0%), 종합병원이 32명 (23.0%)으로 나타났고, 근무형태는 3교대가 111명 (79.9%), 4교대로 근무경력은 평균 6.42±3.58년이었고, 6-10년 미만이 59명 (42.4%)으로 가장 많았고 3-5년 미만 49명 (35.3%), 10년 이상이 17명 (12.2%) 순으로 나타났고, 변호소 근무경력은 3.77±2.38년으로 5년 미만이 44명 (31.7%)으로 가장 많았고 3-5년 미만 42명 (30.2%), 1-3년 미만이 34명 (24.5%) 순으로 나타났다. 근무주기는 일반병동이 56명 (40.3%)으로 가장 많았고, 중환자실이 36명 (25.9%) 순으로 나타났으며, 직책은 일반간호사 107명 (77.0%), 근무지 만족도는 보통이 85명 (61.2%)으로 가장 많았다. 연봉은 4000만원 이상이 50명 (36.0%)으로 가장 높았으며, 3000-3500만원 미만과 3500-4000만원 미만이 각 37명 (26.6%) 순으로 나타났다.
<표 2> 대상자의 직무관련 특성

(N=139)

<table>
<thead>
<tr>
<th>특 성</th>
<th>구 분</th>
<th>실수</th>
<th>백분율</th>
<th>평균±표준편차</th>
</tr>
</thead>
<tbody>
<tr>
<td>병원형태</td>
<td>대학병원</td>
<td>107</td>
<td>77.0</td>
<td></td>
</tr>
<tr>
<td></td>
<td>중합병원</td>
<td>32</td>
<td>23.0</td>
<td></td>
</tr>
<tr>
<td>근무형태</td>
<td>3교대</td>
<td>111</td>
<td>79.9</td>
<td></td>
</tr>
<tr>
<td></td>
<td>상근(고정)근무</td>
<td>28</td>
<td>20.1</td>
<td></td>
</tr>
<tr>
<td>총 근무경력</td>
<td>1-3년 미만</td>
<td>14</td>
<td>10.1</td>
<td>6.42±3.58</td>
</tr>
<tr>
<td></td>
<td>3-5년 미만</td>
<td>49</td>
<td>35.3</td>
<td></td>
</tr>
<tr>
<td></td>
<td>6-10년 미만</td>
<td>59</td>
<td>42.4</td>
<td></td>
</tr>
<tr>
<td></td>
<td>10년 이상</td>
<td>17</td>
<td>12.2</td>
<td></td>
</tr>
<tr>
<td>혼부서</td>
<td>1년 미만</td>
<td>19</td>
<td>13.7</td>
<td>3.77±2.38</td>
</tr>
<tr>
<td>근무경력</td>
<td>1-3년 미만</td>
<td>34</td>
<td>24.5</td>
<td></td>
</tr>
<tr>
<td></td>
<td>3-5년 미만</td>
<td>42</td>
<td>30.2</td>
<td></td>
</tr>
<tr>
<td></td>
<td>5년 이상</td>
<td>44</td>
<td>31.7</td>
<td></td>
</tr>
<tr>
<td>근무부서</td>
<td>일반병동</td>
<td>56</td>
<td>40.3</td>
<td></td>
</tr>
<tr>
<td></td>
<td>중환자실</td>
<td>36</td>
<td>25.9</td>
<td></td>
</tr>
<tr>
<td></td>
<td>응급실</td>
<td>12</td>
<td>8.6</td>
<td></td>
</tr>
<tr>
<td></td>
<td>기타</td>
<td>35</td>
<td>25.2</td>
<td></td>
</tr>
<tr>
<td>직책</td>
<td>일반간호사</td>
<td>107</td>
<td>77.0</td>
<td></td>
</tr>
<tr>
<td></td>
<td>채용간호사</td>
<td>32</td>
<td>23.0</td>
<td></td>
</tr>
<tr>
<td>근무지방측도</td>
<td>반복</td>
<td>19</td>
<td>13.7</td>
<td></td>
</tr>
<tr>
<td></td>
<td>보통</td>
<td>85</td>
<td>61.2</td>
<td></td>
</tr>
<tr>
<td></td>
<td>불안정</td>
<td>35</td>
<td>25.2</td>
<td></td>
</tr>
<tr>
<td>연봉</td>
<td>3000만원 미만</td>
<td>15</td>
<td>10.8</td>
<td></td>
</tr>
<tr>
<td></td>
<td>3000-3500만원 미만</td>
<td>37</td>
<td>26.6</td>
<td></td>
</tr>
<tr>
<td></td>
<td>3500-4000만원 미만</td>
<td>37</td>
<td>26.6</td>
<td></td>
</tr>
<tr>
<td></td>
<td>4000만원 이상</td>
<td>50</td>
<td>36.0</td>
<td></td>
</tr>
</tbody>
</table>
B.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스트레스 정도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직무스트레스 정도는 <표 3>과 같다.

본 연구에서 학업병행간호사의 자아탄력성의 평균은 2.37±0.58점으로 나타났다. 하부영역별로는 ‘대인관계’가 3.74±0.42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호기심’ 3.45±0.62점, ‘활력성’ 3.45±0.57점, ‘감정통제’ 3.23±0.58점, ‘낙관성’ 3.05±0.62점 순이었다.

본 연구에서 학업병행간호사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평균은 최대 5.11점에 3.66±0.43점으로 나타났다. 하부영역별로는 ‘자기 조절 효능감’이 4.11±0.49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자신감’ 3.48±0.81점, ‘과체 날이도 선호’ 3.40±0.60점 순이었다.

본 연구에서 학업병행간호사의 일상생활 스프레스의 평균은 최대 2.92점에 1.91±0.48점으로 나타났다. 하부영역별로는 ‘여유 없는 생활’ 2.08±0.7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진강 관련’ 2.02±0.91점, ‘가정 및 일상생활’이 1.94±0.54점, ‘인간관계’ 1.63±0.54점 순이었다.

본 연구에서 학업병행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의 평균은 최대 2.95점에 1.99±0.34점으로 나타났다. 하부영역별로는 ‘직무요구’가 2.75±0.6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조직체계’ 2.26±0.70점, ‘직무자율성’ 2.18±0.45점, ‘보고부적절’ 2.02±0.59점, ‘직장문화’ 1.73±0.67점, ‘직무불안’ 1.53±0.93점, ‘판계갈등’ 1.50±0.56점 순이었다.
<표 3>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스트레스 점도
(N=139)

<table>
<thead>
<tr>
<th>변 수</th>
<th>평균±표준편차</th>
<th>최소값</th>
<th>최대값</th>
</tr>
</thead>
<tbody>
<tr>
<td>자아탄력성 평균</td>
<td>3.39±0.36</td>
<td>2.37</td>
<td>4.58</td>
</tr>
<tr>
<td>대인관계</td>
<td>3.74±0.42</td>
<td>2.67</td>
<td>4.67</td>
</tr>
<tr>
<td>활약성</td>
<td>3.45±0.57</td>
<td>1.50</td>
<td>4.50</td>
</tr>
<tr>
<td>호기심</td>
<td>3.45±0.62</td>
<td>2.00</td>
<td>5.00</td>
</tr>
<tr>
<td>감정통제</td>
<td>3.23±0.58</td>
<td>1.80</td>
<td>4.40</td>
</tr>
<tr>
<td>낙관성</td>
<td>3.05±0.62</td>
<td>1.50</td>
<td>5.00</td>
</tr>
<tr>
<td>학업적 자기효능감 평균</td>
<td>3.66±0.43</td>
<td>2.42</td>
<td>5.11</td>
</tr>
<tr>
<td>과제 난이도 선호</td>
<td>3.40±0.60</td>
<td>1.00</td>
<td>5.00</td>
</tr>
<tr>
<td>자기 조절 효능감</td>
<td>4.11±0.49</td>
<td>3.00</td>
<td>5.20</td>
</tr>
<tr>
<td>자신감</td>
<td>3.48±0.81</td>
<td>1.75</td>
<td>5.75</td>
</tr>
<tr>
<td>직무스트레스 평균</td>
<td>1.99±0.34</td>
<td>1.24</td>
<td>2.95</td>
</tr>
<tr>
<td>직무요구</td>
<td>2.75±0.64</td>
<td>1.33</td>
<td>4.00</td>
</tr>
<tr>
<td>직무지속성</td>
<td>2.18±0.45</td>
<td>0.67</td>
<td>3.33</td>
</tr>
<tr>
<td>관계갈등</td>
<td>1.50±0.56</td>
<td>0.00</td>
<td>3.11</td>
</tr>
<tr>
<td>직무불안정</td>
<td>1.53±0.93</td>
<td>0.00</td>
<td>4.00</td>
</tr>
<tr>
<td>조직체계</td>
<td>2.26±0.70</td>
<td>0.44</td>
<td>4.00</td>
</tr>
<tr>
<td>보상부적절</td>
<td>2.02±0.59</td>
<td>0.33</td>
<td>4.00</td>
</tr>
<tr>
<td>직장문화</td>
<td>1.73±0.67</td>
<td>0.00</td>
<td>3.33</td>
</tr>
</tbody>
</table>
C.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직무스트레스

1.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직무스트레스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은 취미생활 유무(т=2.402, p=.018)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취미생활이 있는 경우 자아탄력성이 높았다. 이 외 나이, 종교, 결혼상태, 자녀, 학력, 학기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종교유무(т=2.341, p=.02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종교가 있는 경우 학업적 효능감이 높았다. 이 외 나이, 결혼상태, 자녀, 학력, 학기, 취미생활 여부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4학기생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았으며, 석사(전문과정)가 RN-BSN보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는 취미활동 여부(т=−2.603, p=.010)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취미활동이 없는 경우 직무스트레스가 높았다. 이 외 나이, 종교, 결혼상태, 자녀, 학력, 학기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25세미만에서 종교가 없는 경우가 직무스트레스가 높았다.
<표 4> 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직무스트레스

(N=139)

<table>
<thead>
<tr>
<th>특성</th>
<th>구분</th>
<th>자아탄력성 M±SD</th>
<th>t or F (p)</th>
<th>학업적 자기효능감 M±SD</th>
<th>t or F (p)</th>
<th>직무스트레스 M±SD</th>
<th>t or F (p)</th>
</tr>
</thead>
<tbody>
<tr>
<td>나이</td>
<td>25세이하</td>
<td>3.32±0.35</td>
<td></td>
<td>3.56±0.39</td>
<td></td>
<td>2.04±0.39</td>
<td></td>
</tr>
<tr>
<td></td>
<td>26-30세이하</td>
<td>3.41±0.40</td>
<td>.441</td>
<td>3.66±0.46</td>
<td>.924</td>
<td>2.00±0.33</td>
<td>.985</td>
</tr>
<tr>
<td></td>
<td>31-35세이하</td>
<td>3.37±0.24</td>
<td>(.724)</td>
<td>3.76±0.44</td>
<td>(.431)</td>
<td>2.00±0.32</td>
<td>(.426)</td>
</tr>
<tr>
<td></td>
<td>36세이상</td>
<td>3.40±0.34</td>
<td></td>
<td>3.73±0.21</td>
<td></td>
<td>1.84±0.28</td>
<td></td>
</tr>
<tr>
<td>종교</td>
<td>유</td>
<td>3.43±0.33</td>
<td>1.759</td>
<td>3.73±0.44</td>
<td>2.341</td>
<td>1.96±0.35</td>
<td>1.329</td>
</tr>
<tr>
<td></td>
<td>무</td>
<td>3.32±0.39</td>
<td>.081</td>
<td>3.56±0.40</td>
<td>.021</td>
<td>2.04±0.32</td>
<td>.186</td>
</tr>
<tr>
<td>결혼상태</td>
<td>미혼</td>
<td>3.37±0.38</td>
<td>-.891</td>
<td>3.67±0.44</td>
<td>.133</td>
<td>1.99±0.32</td>
<td>-.086</td>
</tr>
<tr>
<td></td>
<td>기혼</td>
<td>3.44±0.30</td>
<td>(.375)</td>
<td>3.65±0.38</td>
<td>(.894)</td>
<td>2.00±0.42</td>
<td>(.932)</td>
</tr>
<tr>
<td>자녀</td>
<td>유</td>
<td>3.41±0.28</td>
<td>.266</td>
<td>3.66±0.33</td>
<td>.016</td>
<td>1.94±0.37</td>
<td>-.634</td>
</tr>
<tr>
<td></td>
<td>무</td>
<td>3.38±0.37</td>
<td>(.791)</td>
<td>3.66±0.44</td>
<td>(.987)</td>
<td>2.00±0.34</td>
<td>(.527)</td>
</tr>
<tr>
<td>학력</td>
<td>RN-BSN과정</td>
<td>3.42±0.38</td>
<td>1.836</td>
<td>3.65±0.46</td>
<td>.221</td>
<td>2.02±0.34</td>
<td>.713</td>
</tr>
<tr>
<td></td>
<td>석사(일반과정)</td>
<td>3.53±0.29</td>
<td>(.163)</td>
<td>3.67±0.42</td>
<td>(.802)</td>
<td>1.92±0.30</td>
<td>(.492)</td>
</tr>
<tr>
<td></td>
<td>석사(전문과정)</td>
<td>3.34±0.32</td>
<td>(.163)</td>
<td>3.71±0.30</td>
<td>(.97)</td>
<td>1.97±0.36</td>
<td>(.496)</td>
</tr>
<tr>
<td>학기</td>
<td>2학기</td>
<td>3.35±0.39</td>
<td>-1.624</td>
<td>3.62±0.43</td>
<td>-1.456</td>
<td>2.01±0.33</td>
<td>.688</td>
</tr>
<tr>
<td></td>
<td>4학기</td>
<td>3.45±0.30</td>
<td>(.107)</td>
<td>3.73±0.42</td>
<td>(.148)</td>
<td>1.97±0.36</td>
<td>(.496)</td>
</tr>
<tr>
<td>취미활동</td>
<td>유</td>
<td>3.48±0.35</td>
<td>2.402</td>
<td>3.73±0.54</td>
<td>1.313</td>
<td>1.90±0.32</td>
<td>-2.603</td>
</tr>
<tr>
<td></td>
<td>무</td>
<td>3.33±0.36</td>
<td>(.018)</td>
<td>3.62±0.37</td>
<td>(.193)</td>
<td>2.05±0.34</td>
<td>(.010)</td>
</tr>
</tbody>
</table>
2. 대상자의 직무관련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직무스트레스

대상자의 직무관련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직무관련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은 근무지방족도(\(r=3.814, p=.024\))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근무지 방족도에서 만족하는 경우 자아탄력성이 높았다. 이 외 병원형태, 근무형태, 총 근무경력, 협부서 근무경력, 근무부서, 직책, 연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상근근무의 경우, 근무경력이 3~5년미만인 경우, 일반간호사인 경우 자아탄력성이 높았다.

직무관련 특성에 따른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근무형태(\(t=-2.930, p=.004\))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3교대보다 상근(고정)근무가 학업적 효능감이 높았다. 이 외 병원형태, 총 근무경력, 협부서 근무경력, 근무부서, 직책, 근무지 만족도, 연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일반간호사의 경우, 근무지에 만족하는 경우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았다.

직무관련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는 근무형태(\(t=2.548, p=.012\)), 근무지 만족도 (\(r=18.768, p<.001\))에서 차이가 있었다. 3교대 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지만족도에서는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Schéffe 검정한 결과, 만족, 보통 불만족 순으로 직무스트레스가 높았다. 이 외 병원형태, 총 근무경력, 협부서 근무경력, 근무부서, 직책, 연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 근무부서가 응급실인 경우 직무스트레스가 높았다.
대상자의 직무관련 특성에 따른 자아탄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및 직무스트레스

(N=139)

<table>
<thead>
<tr>
<th>특성</th>
<th>구분</th>
<th>자아탄력성</th>
<th>학업적 자기효능감</th>
<th>직무스트레스</th>
</tr>
</thead>
<tbody>
<tr>
<td>병원형태</td>
<td>대학병원</td>
<td>3.40±0.37</td>
<td>1.135</td>
<td>3.67±0.42</td>
</tr>
<tr>
<td></td>
<td>종합병원</td>
<td>3.32±0.35</td>
<td>(258)</td>
<td>3.64±0.47</td>
</tr>
<tr>
<td>군무형태</td>
<td>3교대</td>
<td>3.36±0.34</td>
<td>-1.232</td>
<td>3.61±0.41</td>
</tr>
<tr>
<td></td>
<td>상근(고정)근무</td>
<td>3.47±0.44</td>
<td>(.151)</td>
<td>3.87±0.44</td>
</tr>
<tr>
<td>총</td>
<td>1-3년미만</td>
<td>3.18±0.31</td>
<td></td>
<td>3.54±0.40</td>
</tr>
<tr>
<td></td>
<td>3-5년미만</td>
<td>3.47±0.38</td>
<td>2.519</td>
<td>3.65±0.40</td>
</tr>
<tr>
<td></td>
<td>6-10년미만</td>
<td>3.37±0.36</td>
<td>(.051)</td>
<td>3.72±0.48</td>
</tr>
<tr>
<td></td>
<td>10년이상</td>
<td>3.35±0.30</td>
<td></td>
<td>3.58±0.33</td>
</tr>
<tr>
<td>혼부서</td>
<td>1년 미만</td>
<td>3.41±0.38</td>
<td></td>
<td>3.76±0.49</td>
</tr>
<tr>
<td></td>
<td>1-3년 미만</td>
<td>3.35±0.33</td>
<td>.249</td>
<td>3.57±0.39</td>
</tr>
<tr>
<td></td>
<td>3-5년 미만</td>
<td>3.42±0.41</td>
<td>(.862)</td>
<td>3.65±0.43</td>
</tr>
<tr>
<td></td>
<td>5년 이상</td>
<td>3.37±0.34</td>
<td></td>
<td>3.70±0.42</td>
</tr>
<tr>
<td>근무부서</td>
<td>일반과일</td>
<td>3.33±0.35</td>
<td></td>
<td>3.60±0.40</td>
</tr>
<tr>
<td></td>
<td>종합과일</td>
<td>3.39±0.37</td>
<td>1.030</td>
<td>3.69±0.42</td>
</tr>
<tr>
<td></td>
<td>응급과일</td>
<td>3.47±0.28</td>
<td>(.382)</td>
<td>3.69±0.42</td>
</tr>
<tr>
<td></td>
<td>기타</td>
<td>3.45±0.39</td>
<td></td>
<td>3.72±0.49</td>
</tr>
<tr>
<td>특성</td>
<td>구분</td>
<td>자아탄력성</td>
<td></td>
<td>학업적 자기효능감</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M±SD</td>
<td>t or F (p)</td>
<td>M±SD</td>
</tr>
<tr>
<td>직책</td>
<td>일반간호사</td>
<td>3.41±0.38</td>
<td>1.638</td>
<td>3.69±0.44</td>
</tr>
<tr>
<td></td>
<td>책임간호사</td>
<td>3.29±0.27</td>
<td>(.104)</td>
<td>3.58±0.38</td>
</tr>
<tr>
<td>근무지</td>
<td>만족^a</td>
<td>3.54±0.32</td>
<td>3.814</td>
<td>3.84±0.52</td>
</tr>
<tr>
<td></td>
<td>불만족^b</td>
<td>3.40±0.36</td>
<td>(.024)</td>
<td>3.65±0.38</td>
</tr>
<tr>
<td></td>
<td>불만족^c</td>
<td>3.27±0.36</td>
<td>a&gt;c</td>
<td>3.59±0.48</td>
</tr>
<tr>
<td>연봉</td>
<td>3000만원미만</td>
<td>3.44±0.35</td>
<td>3.65±0.27</td>
<td>2.06±0.28</td>
</tr>
<tr>
<td></td>
<td>3000~3500만원 미만</td>
<td>3.37±0.38</td>
<td>.298</td>
<td>3.61±0.44</td>
</tr>
<tr>
<td></td>
<td>3500~4000만원 미만</td>
<td>3.42±0.40</td>
<td>(.827)</td>
<td>3.68±0.49</td>
</tr>
<tr>
<td></td>
<td>40000만원 이상</td>
<td>3.36±0.33</td>
<td>3.69±0.41</td>
<td>1.96±0.33</td>
</tr>
</tbody>
</table>
D.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학업효능감 및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 정도와의 관계는 <표 6>과 같다. 자아탄력성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r=.391, p<.001), 직무스트레스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r=-.187, p=.028).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 다 (r=-.178, p=.036). 즉, 자아탄력성이 증가할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증가하고 직무스트레스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적 효능감이 증가할수록 직무스트레스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대상자의 자아탄력성, 학업효능감 및 스트레스 간의 상관관계

<table>
<thead>
<tr>
<th>변 수</th>
<th>자아탄력성</th>
<th>학업적 자기효능감</th>
<th>직무스트레스</th>
</tr>
</thead>
<tbody>
<tr>
<td></td>
<td>r(p)</td>
<td>r(p)</td>
<td>r(p)</td>
</tr>
<tr>
<td>자아탄력성</td>
<td>1</td>
<td></td>
<td></td>
</tr>
<tr>
<td>학업적 자기효능감</td>
<td>.391 (p&lt;.001)</td>
<td>1</td>
<td></td>
</tr>
<tr>
<td>직무스트레스</td>
<td>-.187 (p=.028)</td>
<td>-.178 (p=.036)</td>
<td>1</td>
</tr>
</tbody>
</table>
V. 논의

본 연구는 학업을 병행하는 간호사의 자아존중성,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 정도를 확인하고, 그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학업병행간호사의 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을 주고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하였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점수는 6점 만점에 평균 3.66점으로 하부영역별로는 자기조절 효능감이 4.1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자신감, 과제 난이도 선호 순이었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경우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아 비교하기 어려우나, 의학생을 대상으로 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변경수(2011)의 연구에서는 평균 3.43점으로 본 연구 대상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 점수가 더 높았다. 이는 학업병행간호사들은 학업적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행위를 조직하고 실행해 나가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 보다 높이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 정신간호사들 대상으로 한 이단희(2011)의 연구에서 임상경력, 부서경력, 학력, 근무경력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경험을 바탕으로 한 실험경력이 있으며 간호현장에서 실효 및 대인관계에 충분한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보다 높은 자기효능감을 보유하는 것으로 보여지며, 지속적인 교육의 기회가 주어질 때, 적절한 보상이 주어질 때 자기효능감도 더 높게 발휘될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자기효능감에서 나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해서는 개인 스스로 능력을 강화하려는 노력도 필요할 뿐 아니라 병원자체에서 상위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업성취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의 평균은 4점 만점에 1.99점으로 나타났으며, 하부영역별로는 직무요구가 2.7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조직체계, 직무자동성, 보상부적절, 직장문화, 직무불안정, 관계갈등 순으로 나타났다. 김영임(2011)의 연구에서 직무스트레스의 평균 점수는 1.70점이었으며, 직무요구가 가장 높았고, 조직체계, 직무자동성 순으로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직무요구에 대한 지각정도가 높았던 전형연구(김정희 외, 2009; 장인순, 2009)와 유사하였고, 90년대 후반 이래로 우리 사회전반에서 진행된 급속한 경제적 변화가 근로자들에게 직무불안정과 파도한 업무량으로 인한 직무요구가 증가한 이유이다(김정희 외, 2010).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의 차이에서는 근무형태가 상근(고정) 근무보다 3교대 근무가 취미활동이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가, 근무지만족도에서는 만족, 보통 불만족 순으로 직무스트레스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신규간호사를 대상으로 근무형태, 운동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고 보고한 이임경(2012)의 연구의 결과와 유사하며, 김영임(2011)의 연구에서도 교대근무자가 주간근무자에 비하여 직무스트레스 정도가 높게 나타난 연구 결과와도 일관성이 있는 결과이다. 정신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이단희(2011)의 연구에서 근무지 만족도가 낮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높게


학업행진간호사를 대상으로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직무스트레스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매개변인으로써 효과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다른 의료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스트레스에 대해 의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민경수(2011)의 연구에서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학업 스트레스는 유의미한 음의 상관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토대로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요하며, 스트레스를 극복하며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업적 자
기능감의 증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작업을 병행하고 있는 간호사들은 일과 가정,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으며,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작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상자의 직무스트레스 감소에 도움을 주고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직무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자아탄력성과 작업적 자기효능감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학업을 병행하고 있는 간호사의 자아타당성,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를 확인하고, 자아타당성,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상관관계 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A대학병원과 A대학교에 다니는 교육부령이 지정하는 대학급 이상의 간호교육 전문기관에서 시행하는 간호학사 학위 특별과정(RN-BSN), 대학원 석사학위 및 전문간호사 과정까지를 포함한 공식적인 교육과정을 받고 있는 간호사로서 선정기준은 종합병원 이상의 병원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공식적인 교육과정을 1학기 이상 받고 있는 임상간호사를 대상으로 임의 표출하여 간호사 139명을 최종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연구대상자의 자아타당성의 평균은 최대 5점에 3.39점으로 나타났고, 하부영역별로는 대인관계가 3.7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호기심, 활성성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적 자기효능감의 평균은 최대 6점에 3.66점으로 나타났고, 하부영역별로는 자기 조절 효능감이 4.11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자신감, 과제 난이도 선호 순이었다. 직무스트레스의 평균은 최대 5점에 1.99점으로 나타났고, 하부영역별로는 직무요구가 2.75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조직적응, 직무자율성, 보상부적절 순이었다.

자아타당성과 직무스트레스(р=-.187, р=.028),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직무스트레스(р=-.178, р=.036)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의 차이를 살펴보면 근무형태 (t=2.548, р=.012), 근무지 반복도(р=18.788, р<.001), 취미활동 여부(t=-2.603, р=.010)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 결과 학업병행간호사의 자아탄력성이 높을수록,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높을수록 직무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학업병행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를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직무스트레스 조절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뿐만 아니라 자아탄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 학업병행간호사의 자아탄력성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을 제언한다.
- 자기효능감에서 나아가 학업적 자기효능감 증진을 위해서는 개인 스스로 능력을 강화하려는 노력도 필요할 뿐 아니라 병원자체에서 상위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정책개발을 제언한다.
- 연구대상자가 경기 소재의 한 대학교와 병원의 학업병행간호사로 한정되어 있어 일반화에 제한이 있으므로 대표성이 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하는 반복, 비교연구를 제언한다.
참고문헌


김수경 (2013). 간호사의 자아탄력성, 스텔레스 대처방식 및 조직사회화의 관계.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경산.
김아영, 박인영 (2001). 학업적 자기효능감 정도 기술 및 타당화 연구. 한국교육학회지, 39(1), 95-123.
김영임 (2010). 원격대학 학생의 일상생활스트레스 정도 및 영향요인. 평생학습사례지, 6(2), 1-17.
김정희, 현미영, 김숙영 (2009). 임상간호사의 직무 스트레스와 자기효능감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21(2), 134-144.
박성경, 김종오, 조영재 (2011). 대학병원 간호사의 직무스트레스와 사회심리적 스트레스의 관련성. 한국산학기술학회지, 12(9), 3887-3896.
부산가톨릭대학교 생명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부산.
안지영 (2007). 일개 병원 임상간호사의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직업건강간호학회지, 16(2), 139-146.
이난희 (2011). 정신간호사의 자기효능감, 직무스트레스, 소진의 관계. 이화여자대
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이임정 (2012). 신규간호사의 수면 질에 따른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 간상태.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수원.
장세진 (1992).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 사무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서울.
최혜선 (2007). 생산적 남성 근로자의 스트레스와 대처. 올지의과대학교 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대전.
한금선, 박영희, 김성열 (2011). 임상간호사의 스트레스 관련 기질, 소진감, 강임성
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스트레스학회지, 19(1), 79-87.
홍선영 (2011). 의학전문대학원생의 스트레스, 자아존중성, 자기효능감과 임상수행
능력과의 관계. 한국간호학회지, 12(1), 5797-5804.
황순복, 구형모, 김지혜 (2001). 자아존중질환의 성격특질. 한국심리학회지, 20(3),
569-581.
Claus, K. E. (1980). The nature of stress: Living with stress and promoting
well-being. St. Louis; C.v. Mosby.
Jackson, Firko & Edenborough (2007). Personal resilience as a strategy for
surviving and thriving in the face of workplace adversity: a literature
Jie Li and Vickie Ann Lambert (2008). Workplace stressors, coping,
demographics and job satisfaction in Chinese intensive care nurses.
Nursing in Critical Care, 13(1), 12-24.
self-efficacy and its relations to psychological well-being status in
Iranian male high school students. *Society for personality research*, 36(2), 257-266.


심의결과통보서

아주대학교

수신자: 간호대학 박지원 / 없음
(경유)

제목: 기관연구윤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지

2014년 10월 14일에 귀하가 제출한 보고서를 (조건부 승인)에 대하여 기관연구윤리심의위원회
에서 심의결과를 통해 통지하며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table>
<thead>
<tr>
<th>승인번호</th>
<th>연구책임자</th>
<th>연구의뢰기관</th>
<th>연구과제명</th>
</tr>
</thead>
<tbody>
<tr>
<td>AJIRB-BIR-5 UR-14-329</td>
<td>간호대학 박지원</td>
<td>없음</td>
<td>학업 영향 간호사의 자아탄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td>
</tr>
</tbody>
</table>

별 장: 심의결과통보서 1부, 끝.

아주대학교병원장

IPB 담당 성진욱

사원: AJIRB-IRB-200561번 (2014년 10월 20일)

우 443-380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번지

아주대학교병원 본관 5층 기관연구윤리심의소(IRB)

https://eirb2.ajoumc.or.kr

전화 031-219-4061, 4502, 5569 전송 031-219-4062

irb@ajou.ac.kr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주대학교 간호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이 설문지는 학업병행간호사의 자아탄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를 위한 설문지입니다.
이 연구는 학업병행간호사의 자아탄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학업병행간호사의 자아탄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 스트레스를 확인하고 자아탄력성,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파악하여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예측요인을 규명함으로써 간호사의 스트레스 대처에 도움을 주고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세우는데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지는 자발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에 한하여 실시되며, 학문적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모든 정보에 대한 비밀은 보장되어 질것을 약속드립니다.
설문에 소요되는 시간은 10~15분 정도이며, 힘들고 바쁜시기지만, 귀하의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어 한분 한분의 순직한 경험이, 느낌과 생각의 소중한 고견을 주신다면 이 연구결과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연구의 참여자로서 귀하가 가지는 권리나 설문에 대해 질문 또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다음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됩니다.
바쁜 가운데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4년 9월

연구책임자 : 박지원 교수
공동연구자 : 심수경 석사과정
부속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전화번호 : 010-3115-7211
E-mail : petalsk@hanmail.net

부록 2> 피험자 설명문 및 동의서
서면 동의 서

본인은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시행되는 설문조사 과정에 대해 설명을 제공받고 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자유로운 의사로 설문조사에 참여하기로 동의하며 동의서 사본 1부를 수령합니다.

참여자:
2014년 월 일 (서명)

연구자:
2014년 월 일 (서명)
<부록 3> 설문지

### I. 자아탄력성

다음의 문항들은 여러분의 자아탄력성(스트레스의 영향으로부터 다시 그 이전의 자아-통제 수준을 변화시킬 수 있고, 되돌아 갈 수 있는 역동적인 능력을 말함)을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에게 해당하는 사항을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table>
<thead>
<tr>
<th>항 목</th>
<th>전혀 아니다</th>
<th>아니다</th>
<th>보통이다</th>
<th>그렇다</th>
<th>매우 그렇다</th>
</tr>
</thead>
<tbody>
<tr>
<td>1. 나는 너그럽고 마음씨 좋게 친구들을 대한다.</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 나는 어떤 일이 갑작 놀라게 되더라도 곧바로 다시 편안한 상태로 돌아온다.</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3. 나는 새롭고 특이한 일을 다루고 처리하는 것을 즐긴다.</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 나는 대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긴다.</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5. 나는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새로운 음식을 맛보기를 즐긴다.</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6. 다른 사람들은 나를 매우 활기차고 활동적인 사람으로 생각한다.</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7. 나는 익숙한 장소를 가더라도 다른(새로운) 길로 가는 것을 좋아한다.</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8. 나는 대다수의 사람들 보다 호기심이 더욱 강하다.</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9. 내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호감이 가는 좋은 사람들이다.</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내용</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0.</td>
<td>나는 어떤 일을 행동에 옮기기 전에 먼저 주의 깊게 생각한다.</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1.</td>
<td>나는 새롭고 다른 일을 해보는 것이 좋다.</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2.</td>
<td>나의 하루하루의 삶은 흥미진진한 일들로 가득 차 있다.</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3.</td>
<td>나는 내 자신이 상당히 강한 성격을 가졌다고 생각한다.</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4.</td>
<td>나는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났을 때 이성을 갖고 빠리 화를 폄다.</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다음의 문항들은 여러분이 학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각 문항을 잘 읽고 자기의 상황이나 장면을 잘 나타내는 것에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table>
<thead>
<tr>
<th>항 목</th>
<th>전혀 그렇지 않다</th>
<th>상당히 그렇지 않다</th>
<th>그렇지 않은 편이다</th>
<th>그런 편이다</th>
<th>상당히 그런 편이다</th>
<th>매우 그렇게</th>
</tr>
</thead>
<tbody>
<tr>
<td>1.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 재미있다.</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 가능하다면 어려운 과목은 피해가고 싶다.</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3. 나는 깊이 생각해야 하는 문제보다는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를 더 좋아한다.</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 비록 실패하다라도 다른 친구들이 풀지 못한 문제에 도전하는 것이 즐겁다.</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5. 시간이 많이 들더라도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과목이 더 재미있다.</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6. 만약 여러 과목 중 몇 과목만을 선택할 수 있다면, 쉬운 과목만을 선택할 것이다.</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7. 학교 공부는 무조건 쉬울수록 좋다.</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8. 쉬운 문제보다는 조금 힘들더라도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이 더 좋다.</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9. 나는 쉬운 문제를 여러 개 푸는 것보다 어려운 문제 하나를 푸는 것을 더 중요한다.</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0. 나는 쉬운 과목보다는 어려운 과목을 좋아한다.</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1. 나는 수업시간에 새로 배운 것들을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쉽게 연결시킬 수 있다.</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2. 나는 보통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맞추어 공부한다.</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3. 나는 수업시간 중에 중요한 내용을 잘 기록할 수 있다.</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4. 내가 싫어하는 수업시간에도 주의점을 잘 할 수 있다.</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5. 나는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기억하기 쉽게 바꿀 수 있다.</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6.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을 잘 기억할 수 있다.</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7. 나는 어떻게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인지 잘 알 수 있다.</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8. 나는 정해진 시간 한에 주어진 과제를 잘 마칠 수 있다.</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9.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 중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0. 나는 수업시간에 배운 내용 중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할 수 있다.</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1. 선생님과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는 것은 내게 너무 큰 스트레스를 준다.</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2. 시험을 치우기 전에는 시험을 망칠 것 같은 생각이 든다.</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3. 수업시간 중에 선생님이 문제를 풀라고 시킬 때 실수를 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4. 토론을 할 때, 혹시 참석을 당할까봐 내 의견을 제대로 발 표하지 못한다.</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5. 수업시간에 발표할 때, 실수를 할 것 같아 불안하다.</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6. 선생님이 모두에게 질문을 할 때 답을 알아도 대답하지 못한다.</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7. 시험이 다가오면 불안해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8. 나는 시험 때만 되면 우울해 진다.</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 III. 직무스트레스

다음의 문항들은 여러분의 직무스트레스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귀하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곳에 V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table>
<thead>
<tr>
<th>항 목</th>
<th>전혀 그렇지 않다</th>
<th>그렇지 않다</th>
<th>그렇다</th>
<th>매우 그렇다</th>
</tr>
</thead>
<tbody>
<tr>
<td>1. 나는 일이 많아 항상 시간에 쫓기며 일한다.</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2. 업무량이 현저하게 증가하였다.</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3. 업무 수행 중에 충분한 휴식(잠)이 주어진다.</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4.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해야 한다.</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5. 내 업무는 창의력을 필요로 한다.</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6. 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기술이나 지식이 필요하다.</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7. 작업시간, 업무수행과정에서 어떤 사안에 대해 결정할 권한이 주어지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8. 나의 업무량과 작업스케줄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9. 나의 상사는 업무를 완료하는데 도움을 준다.</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0. 나의 동료는 업무를 완료하는데 도움을 준다.</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d>11. 직장에서 내가 힘들 때 내가 힘들다는 것을 알아주고 이해해 주는 사람이 있다.</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직장사정이 불안하여 미래가 불확실하다.

나의 근무조건이나 상황에 바람직하지 못한 변화(예, 구조조정)가 있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회사는 근무평가나 승진, 부서배치 등 인사제도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다.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원, 공간, 시설, 장비, 훈련 등의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 부서와 타 부서간에는 마찰이 없고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진다.

일에 대한 나의 생각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와 통로가 있다.

나의 모든 노력과 업적을 고려한 때, 나는 직장에서 제대로 존중과 신임을 받고 있다.

내 사정이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을 생각하면 힘든 줄 모르고 일하게 된다.

나의 능력을 개발하고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회식 자리가 불편하다.

나는 기준이나 일관성이 없는 상태로 업무 지시를 받는다.

직장의 분위기가 권위적이고 수직적이다.

남성, 여성이라는 성적인 차이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다.
다음은 여러분의 일반적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빠짐없이 해당란에 하시거나 직접 기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귀하의 나이는? 만 ( )세

2. 귀하의 성별은?
   ① 남  ② 여

3. 귀하의 종교는?
   ① 기독교  ② 천주교  ③ 불교  ④ 무교  ⑤ 기타

4. 귀하의 결혼 상태는?
   ① 미혼  ② 기혼  ③ 기타(이혼, 별거, 사별 등)
   자녀가 있으시다면 자녀수는? ( )명

5. 귀하의 학력은?
   ① RN-BSN 과정  ② 석사과정(일반과정)  ③ 석사과정(전문간호사과정)

6. 귀하의 학기는?
   ① 1학기  ② 2학기  ③ 3학기  ④ 4학기

7. 귀하의 병원형태는?
   ① 일반병원  ② 대학병원  ③ 종합병원  ④ 기타( )

8. 귀하의 근무형태는
   ① 3교대  ② 상근(고정)근무  ③ 기타( )
9. 귀하의 총 병원 근무 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     )년 (     )개월

10. 귀하의 현 근무 부서에서의 근무 기간은 어떻게 되십니까?
    (     )년 (     )개월

11. 귀하의 현재 근무부서는?
    ① 일반병동  ② 중환자실  ③ 응급실  ④ 기타

12. 귀하의 현 직위는?
    ① 일반간호사  ② 책임간호사  ③ 수간호사  ④ 기타

13. 귀하의 현근무지 만족도는?
    ① 만족  ② 보통  ③ 불만족

14. 귀하의 연봉은?
    ① 2500만원 미만  ② 2500~3000만원 미만  ③ 3000~3500만원 미만
    ④ 3500~4000만원 미만  ⑤ 4000만원 이상

15. 취미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① 예  ② 아니오
    있다면 구체적으로?

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Abstract -

Ego-Resilience, Academic Self-efficacy and Job Stress of Nurse in Schoolwork

Su Kyoung Shim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Jee Won Park, RN., Ph.D.)

This was a descriptive study that aimed to identify the ego Resilience, academic self-efficacy, and job stress of practicing nurses who simultaneously pursue their studies and identify the correlation between ego Resilience, academic self-efficacy, and job stress. Random sampling was conducted of the nurse subjects who completed official education curricula including Registered Nurse-Bachelor Science of Nursing executed through professional institutions for nursing education designa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that are higher than or equal to the university level as well as master's degree programs and nurse specialist curriculum; among them, 139 nurses were selected as study subjects. The data collection was performed during October 15 - 30, 2013, while the values
for frequency, percentage,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along with the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levels for ego Resilience, academic self-efficacy, and job stress were determined using IBM SPSS. The levels of ego Resilience, academic self-efficacy, and job stress in accordance with the subjects were analyzed using the t-test and analysis of variance, while Schéffe test was used as post-hoc analysis. The correlation among ego Resilience, academic self-efficacy, and job stress was analyzed using the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The outcom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The average value for ego Resilience of the study subjects was $3.39 \pm 0.36$ points, and personal relations presented the highest subcategory score at $3.74 \pm 0.42$ points. The average academic self-efficacy value of the study subjects was $3.66 \pm 0.43$ points, and self-regulated efficacy had the highest subcategory score at $4.11 \pm 0.49$ points. The average job stress value of the study subjects was $1.99 \pm 0.34$ points, and job requirement had the highest subcategory score at $2.75 \pm 0.64$ points.

2. Ego Resilience and job stress showed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r = -0.187, p = 0.028$). Academic self-efficacy and job stress also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r = -0.178, p = 0.036$).
3. Regarding job stress levels according to the patients’ general characteristics,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working pattern ($t = 2.548, p = .012$), workplace satisfaction ($F = 18.768, p < .001$), and the existence of hobbies ($t = -2.603, p = .010$).

When all outcomes were combined, practicing nurses who simultaneously pursue their studies were experiencing high stress levels about managing work, family affairs, and academic learning; however, nurses with higher ego Resilience and academic self-efficacy experienced lower levels of job stress. Therefore, programs that enhance ego Resilience and academic self-efficacy, both of which are related to job stress, should be developed to help reduce subjects’ job stress levels and increase their job performance, and studies that validate program efficacy should also be conducted.

**Key words:** Nurse in Schoolwork, Ego-resilience, Academic Self-efficacy, Job stress